

미래도시 솔라시도 '글로벌 기업 공개'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참여...전남도·해남군·기업도시 햇빛정원도시 개발 빅데이터 처리 위한 RE100 데이터센터 조성 등 지역소멸 위기 속 해법 제시

햇빛정원도시, 스마트도시로 미래도시를 그려가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2022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이하 WSCE)'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30일 "전남도, 해남군과 함께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2022 WSCE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하는 '2022 WSCE'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소개 및 교류의 장이다.

지, '정원', '스마트'를 핵심 개념으로 해 호수, 바다, 정원을 품은 명품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다.

지난해 솔라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40억원 규모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됐으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태양광 쓰레기 처리시설, 스마트 폴 등 생활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메타버스 안전·방범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특색있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서비스 집약 커뮤니티센터(게스트하우스, 쇼룸, 체육시설 등)를 구축해 보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솔라시도 내 구축될 재생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사업'의 내용도 전시관에 포함된다. 이는 200MW 이상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전용 태양광발전단지,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력 공급 인프라 및 거래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변의 풍부한 태양광 자원을 활용해 3GW급 발전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각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모습을 함께 그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다.

전남도 등은 이번 전시에서 '솔라시도'를 해남군 일대 632만평 부지에 조성중인 친환경 미래도시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래 도시의 주요 키워드인 '에너지

솔라시도의 가장 큰 특징인 '정원 속 도시'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주택이나 건물 사이에 인위적으로 공원을 배치한 기존의 정원도시들과 달리 솔라시도는 본래 그 자리에 있던 자연을 최대한 유지한 채 자연 속에 도시를 그대로 담아냈다.

또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계획된 지역 중심에는

솔라시도 관계자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살고 싶은 미래도시의 표준이 될 솔라시도를 소개하는 좋은 소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지역적 특성과 스마트기술이 조화롭게 구현된 미래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스위스 한 코뮌 주민 총회에서 주민들이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베른시 제공

26개 '칸톤' 있는 연방정부 스위스 국민투표로 국가 정책 중지 모은다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5> 스위스 지방분권

자재 헌법·3부·조세 등 자치권 연방정부 권한은 극히 제한적

지난해 11월 새 법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확인된 가운데 스위스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증서인 '백신 패스' 법안 채택을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이 법안에는 수십억 스위스 프랑을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투표 결과 62.01%의 찬성표를 얻어 법안이 가결됐다.

앞서 같은 해 1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코로나19 방역 법률의 타당성을 묻는 국민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연방정부가 있지만, 권한은 극히 제한적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국가와 지방정부간에 권한은 일명 '보조성의 원칙'에 입각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된다. 학교, 지역 도로, 건설 등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코뮌이 맡고, 이를 해결하기 힘든 사업 등에 관해서만 상급 자치단체인 칸톤이 처리하는 방식이다.

연방은 연방헌법에 따른 업무만 가능하다. 역시 칸톤이 처리하는 어려운 외교, 국방, 통화, 통신,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역할을 보완해주는 역할만 한다.

이처럼 스위스의 행정은 강력한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작은 커뮤니티인 코뮌에서 칸톤, 연방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수직·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스위스가 이처럼 자치분권이 강화된 까닭은 서로 다른 집단과 계층으로 구분됐기 때문이다. 각 연방마다 언어, 종교, 문화 등 다양성과 개별성이 조화를 이루며 권력의 분산을 통해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통합 기능을 가진다.

이렇다 보니 스위스의 26개 칸톤은 서로 서로 '낮은 세금·높은 공공서비스'를 주장하며 유럽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한다.

2700여개의 코뮌도 마찬가지다. 또 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을 얼마나 걷고 높이 낮출지, 법을 만드는 과정 등 모든 것을 주민들 스스로 주민 총회를 통한 찬반 투표로 이뤄진다.

레올라 부르크뮐러 스위스 베른시 대령 직속 대외협력부장은 "코뮌 자체들이 서로 더 살기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들이 거주하게 만들게끔 한다. 그것에서 자치의 힘이 나온다"면서 "코뮌에 사람이 많을수록 세율도 낮아져 최대한 효율적으로 동네를 꾸미고, 이를 이행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역경제 선도할 광주 명품강소기업 선정

시, 재지정 등 19곳...성장 맞춤사업 지원·경영·기술 등 협업 지원

광주시는 3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역경제를 이끌 '제11기 명품강소기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19개사를 선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명품강소기업은 디알텍, 아이코디, 에이스윈, 유진테크, 이젠, 쌍용소프트웨어, 페이스그래픽, 뉴런모터스, 동방엔지니어링, 마노, 아이티스퀘어, 에스디테크, 에스엠지, 인탑스테크닉, 진우알테크, 탈렌티스, 하나텍, 한영하이테크, 휴

텐스바이오다.

명품강소기업은 성장잠재력과 성장의지가 높은 지역 유망중소기업 100여 개사를 발굴·선정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집중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2019년 선정된 제7기 명품강소기업 중 재지정을 희망하는 8개 업체와 신규 선정을 신청한 21개 업체 등 총 29개 업체가 참여했다.

선정된 명품강소기업은 지정기간 3년간 연구개발(R&D)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및 협업 지원 등 기업 성장목표와 성장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 참가 단지 모집

전남도, 농식품부 경진 추천 위해 내달 16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오는 9월 16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제2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 대회'에 참여할 도내 우수 생산단지를 모집한다.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는 국산콩 생산단지의 전문화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고품질 다수확 생산기술 등 우수사례를 전파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다. 지난해 '제1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 대회'에선 영암군서농협과 장성황룡강위탁영농조합이 장려상을 받았다. 참가 자격은 정부지원 논콩 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면적이 10

ha 이상이고 콩 재배면적이 5ha 이상인 농협과 농업법인이다.

참가를 바라는 단체는 단지 운영 실적과 콩 다수확 안정생산체계 및 수확 후 안정적 판로 확보 실적 등을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우수 생산단지를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에 9월 말까지 총 4개소를 선정, 농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콩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올해 우수 농가를 강사로 위촉, 현장 교육을 했다"며 "이번 대회에 우수 생산단지가 많이 참여해,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도 추천을 받아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오는 12월 우수 생산단지 9개소를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병수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광주시는 30일 "광주환경공단 제8대 이사장에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 2명을 추천받아 검토한 끝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 전 구청장을 낙선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3일 시의회에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요청하고 같은 달 21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이날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김병수씨를 확정했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3년이다.

김 원장은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당직자, 한국전신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 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방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